

[오피니언]

光日春秋

김민영



요즘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이 유행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표현이다. 새 정부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부론'은 여러 방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말은 '친기업'이지만, 그 혜택은 고스란히 몇몇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인수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원칙 완화' '자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잘 알려진 것처럼 몇몇 재벌의 오래된 속원사업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2%는 출총제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니 사실 이런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들과는 그다지 큰 이해관계가 없다. 중소기업에 계열사 출자문제나 자주회사 규정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며, 금산분리 완화라는 것도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몇몇 재벌기업의 이야기이지 중소기업이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사들일 업무나 낼 일인가?

따지고 보면 새 정부는 재벌의 오래된 민원에 대해서는 일종의 '현찰'을 내밀고

있지만, 전체 고용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민원은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어음'으로 돌려막고 있다는 느낌을 자울 수 없다.

새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핵심

‘재벌 성공시대’를 경계한다

적으로 내놓은 정책이 중소기업지원펀드 조성이다. 2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행 매각대금으로 중소기업지원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5~7년 후, 즉 차기 정권에서나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불공정거래와 횡포를 차단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선인이나 인수위의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돈이 될 만한 사업이면 대기업이 밀고 들어와 중소기업 문닫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하도급 과정에서 '일방적 계

약해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훔쳐 가기'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는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를 해결할 대안은 많이 나와 있다.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법률지원, 대행·재벌 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납품과 원자재 원가연동제' 등이 그것이다. 재벌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입점제한 등 적절한 규제 역시 재래시장 상인이나, 영세상인들의 속원사업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힘있는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자는

에서 소외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명박 당선인이 이루고자 하는 '경제활성화'도 '사회통합'도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정부는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경제환경을 해쳐나갈 수 있는 몇몇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나래를 펼 수 있는 경제정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사족이지만, 일전에 재벌총수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라는 당선인의 파격적인 제안은 재고하는 것이 어렵다. 한국경제를 취락폐탁 하는 재벌들이 실제 투자와 경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의문이거나 백번 양보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한들 대통령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아도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잘 행기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만, 수시로 이뤄지는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전화통화는 '경제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는 새로운 유착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낼 수 있다. 재벌이 최고권력자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고 특혜를 구하는 시대, 즉 정경유착의 시대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 아닌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선거철만 되면 한국의 정당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이제 더 이상 새 이름을 짓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없이 많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한국의 정당들을 보면서 이곳 미국과 비교해 본다.

미국의 정당들은 정책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의 정당들은 정책보다도 개인 중심 이합집산의 산물인 인상을 갖는다. 이 곳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제도가 정착돼 이어지고 있다.

다른 군수 정당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그 이름조차도 모를 미미할 정도다. 정책의 뚜렷한 차이 때문에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당을

선택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회되고 사용하면 발달하게 되는 것이 모든 생물체의 원리다.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인위적 고생인 운동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군대에서는 고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미국은 '출산 정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를 넣으면 정부에서 금전적 보조를 해준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보조금이 증가한다.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 수입이 증가하면 보조금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아이만 낳

안락이나 인내나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대체로 공화당은 보수, 민주당은 진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민주당은 돈을 직접 줘 당장 도와줘야 한다는데 반해 공화당은 그럴 경우 거지근성이 짙게 자립심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 돈을 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국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에 반해 공화당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려서 기업이 잘 돌아가게 해 국가 이익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고 한다.

민주당은 또 국내 경제도 어려운데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며 전쟁비용을 낭비하는데 반해 돈이 들더라도 지금 큰 화근의 불씨를 잡지 않으면 먼 훗날 더 큰 재앙을 맞게 된다는 것이 공화당의

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오히려 보조금 제도가 기난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느낌마저 든다.

한국을 되돌아 보자.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꼼꼼히 하면서 사랑한다. 그로 인해 자식에게 고생을 경험하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장 눈앞의 어려움마저 각종 도움으로 부모가 해결해 준다. 훗날 스스로 살아갈 밀천인 아이의 자립심이나 국가의 장래는 내팽개치고...

미국인들의 사상은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먼 훗날을 위해 투자하는 정신이 물에 배어 있다. 자기 대에 따르면 틈을 줄 향기 알면서도 100년 후를 내다보며 괴이니무에 투자한다.

현실의 안락이나, 미래를 위한 인내나. 미국의 정당제도와 한국 부모들의 엉간자리 자식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뒤틀고 싶다.

노령인구 급증...노출증 응급의료 체계 강화해야

광주·전남의 인구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성 질환인 중풍, 즉 노출증으로 인한 사망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출증 사망은 OECD 국가중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

한달 전 필자의 지인 중 칠순을 조금 넘기신 분이 노출증으로 쓰러졌다.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지만 안타깝게도 작고하셨다.

노령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우리 현실에서 볼 때 병원들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노출증은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바 '골든 타임'이라고 불리는 발병후 3시간 이내에 처치를 받으면 막힌 뇌혈관을 뚫

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간 내에 실제 응급실에 도착하는 환자는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80%는 사망하거나 다행히 목숨을 건져도 큰 후유장애를 앓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급성질환 대처에 문제가 있다. 응급의료 체계도 부실하고 집중치료 의료기관도 부족하다.

노령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우리 현실에서 볼 때 병원들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노출증에 대한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심희수·광주시 북구 대촌동

자동차 불법 조명등, 교통사고 부른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사고처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시내에 나가보면 요란한 조명장식을 달고 도심을 질주하는 자동차들을 많이 본다. 자동차 앞쪽에는 일반 전조등보다 훨씬 밝은 할로겐등을 달고, 차량 뒤쪽 번호판 주변에도 네온등과 할로겐 등을 달았다. 심지어 차량 내부에까지 각종 조명등을 달고 다닌다.

이런 차들은 상대쪽 운전자의 시야를 심각하게 방해한다. 마주보고 달리던 차가 앞차의 불법 조명등 때문에 시야를 빼앗겨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불법 조명등을 단 차량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놓으므로 이런 장식은 자제해야 한다.

처리중 유심히 살펴보면 조명등을 연결하는 전선들이 어지럽게 갈려 있고 일부 소켓은 이미 과전류로 그을린 것도 있다. 전선은 껍질이 벗겨져 차량화재의 우려까지 있다. 전기 배선에 의한 쇼크는 껍질을 태우기 때문에 이것은 뜨겁게 달궈진 엔진과 그 주변의 인화 물질에 순식간에 발화를 일으켜 차량화재로 이어진다. 특히 가스차의 경우엔 더 위험하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불법 조명등을 단 차량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놓으므로 이런 장식은 자제해야 한다.

▲ 이기태·광주시 광산구 울목동

[시설]

자동차 선적 포기 목포신항 대책 서둘러라

목포신항이 최근 자동차 선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장을 밝혀 기아차 광주공장에 비상이 걸렸다. 목포신항만(?) 측은 자동차 선적을 하면 할수록 손실만 커진다는 이유로 자동차 선적 포기의사를 밝혔다. 목포신항이 자동차 선적을 포기할 경우 이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선적 거부라는 최악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기아차 광주공장이 자동차 선적포기로 물류대란이라도 겪는 날에는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목포신항보다 거리가 훨씬 멀고 군산항이나 평택항을 이용할 경우 시간적 낭비와 함께 물류비 압박이 심해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목포신항 역시 물동량 감소로 위축되는 건 불가피하다.

물동량이 늘면 수익이 나이아하는데 반대로 손해를 보는 현행 선적료 협정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정부는 목포신항의 선적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목포신항 측도 선적을 거부하기 전에 당국과 협상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목포신항은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 등 관계당국과 선적료 조정 협상을 벌

정부 조직 개편안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정부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개편안을 밀어붙일 태세이고 대통합민주신당은 국회의 자율권을 내세우며 신중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개편안에 반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섰다.

조직개편은 매우 중요하다. 새 정부가 각종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첫 작업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올바르다. 국무총리 및 각료 인선과 국회 청문회 등을 감안하면서 늦어도 설 연휴 무렵에는 국회를 통과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선 이런 일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 만큼 개편안에 정치적 타협이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범여권이나 청와대의 반발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아 하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각을 구성할 수 없다. 범여권의 협조 없이는 정부조직에 손을 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는 허름에 역행된다. 통합신당도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무작정 원안 통과를 고집하기보다는 범여권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다. 여론에 밀려 '연재학부'의 명칭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정부는 목포신항의 선적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목포신항 측도 선적을 거부하기 전에 당국과 협상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나이 122세, 출생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약국에서 소화제용 시약으로 개발, 200여 개국에서 1초마다 7천명이 판매됨, 2006년 기준 브랜드 가치 430억 달러, 99.5%의 실탄률과 0.5%의 비밀, 맷도날드와 함께 미국을 상징하는 코카콜라의 약력이다.

코카콜라는 마케팅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왔다. 거울을 비수기 극복을 위해 산타클로스에게 코크의 상장인 빨간 옷을 쳐를 입혔으며 미사일과 원자폭탄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냉전시대 장벽도 거뜬히 끊었다.

미국이 수교한 나라보다 코카콜라가 진출한 나라가 더 많다. 코크가 길을 뚫으면 그 뒤를 미국 대사가 따라간다는 것이다. 소련과 중국은 물론 2000년에는 북한에도 공식 진출했다.

탄산음료는 당시에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세계보건기구도 탄산음료가 비만과 만성질환을 불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산음료는 당시에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세계보건기구도 탄산음료가 비만과 만성질환을 불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장년층에게 학창시절 소풍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던 탄산음료가 건강을 증시하는 '참살이 열풍'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1950년 출시된 칠성사이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禪榮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논설실장 金東永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자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장 申港樂
www.kwangju.co.kr	
편집국내부	사 회 2 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면 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 치 부 2200-616	여론조사부 2200-628
경 제 부 2200-617	체 유통 2200-627
사 회 1 부 2200-618</	